

말들에게 의탁을!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Co./Dept	Fax	Tel	수신자
수신				이사장님
발신				이유미
Date	2005. 5 . 30 .	3 of pages	표지포함 3 장	

이사장님,

<시민의신문> 지령 600호 축하글 관련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주신 글, 늘 그렇듯이 별로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요.

컴퓨터로 워드화하고, 문맥만 조금 매끄럽게 했습니다.

오늘 마감일이라 이사장님 검토도 받지 못하고 일단 보냈습니다.

혹시 수정하시거나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시민의신문에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셨지요?

점심시간에 요즘 건강 챙기시지 못한다는 말씀 듣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사장님 건강은...

이사장님 모시고 있는 실무자들로서는 가장 챙겨드려야 할 부분인데...

최종스럽게도 하루하루 건강은 어떠신지 안부 인사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바쁘시더라도 꼭 건강 챙기셔야합니다.

Subject: 시민의신문 지령 600호 특집호 '축사'- 원고청탁

수신 :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님

참조 : 여성재단 홍보팀 황미영 님

발신 : 시민의신문 (편집국 기자 최문주)

박영숙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시민의신문 최문주 기자입니다.

시민의신문이 6월 6일자로 지령 600호를 맞아 특집호를 내는데, 시민
사회 각계로부터 축사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숙 이사장님의 글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매주 시민의신문을 기다리는 이유>를 작은 주제로 잡았습
니다. 애정 어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문주
NCO

분량은 원고지 3-4 매입니다.

마감은 5월 30일(월)입니다.

우선 청탁 수락 여부를 26일 오전 중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6월 8일(수)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지령 600호 및
창간 12주년 기념행사를 엽니다. 여기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신문 편집국 최문주 드림

시민의식 2월 600호 중점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시민단체의 공동활동인 '시민의식'은 정부기관에서 눈을 뜨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참정권과 행정권, 행정권 지령권과 있는 시민단체중의 활동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시민단체의 주인이 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시민단체의
운동을 위해 내놓은 제반 사회정책을 이끄러 나갈 수 있는 문제 의식을 형성하는데
공헌이 되고 있어서 시민단체도 시민의식을 애용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주의의 지배권 (governance)은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3주체
와 협력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부를 기업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보편적
강화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중요 감수성이 되어주고 있는 시민의식의 모습에
앞으로 2월 600호 발행을 전심으로 축하하며 시민단체의 발전을 뜻으로
시민의식을 통해 배려의 노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식을 매우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외적으로 제하는 모든것을 시민의식을 대외적
의 강점으로 삼아갈 것을 바란다.

시민의 신문 지령 600호 축하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시민단체들의 공동신문인 <시민의 신문>은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시민 사회운동의 활동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 주요현안들을 시민사회의 눈으로 읽어내는가 하면,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모든 점이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다른 여타 일반 언론과는 달리, <시민의 신문>만이 갖추고 있는 강점이자 차별성이기에 시민사회가 늘 시민의 신문을 주목하고 애독하는 이유일 것이다.

오늘날 민주사회의 국정관리(governance)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3주체의 협력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정부와 기업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문>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600호 지령 발행을 맞아, 다시한 번 우리 시민사회가 <시민의 신문>의 주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지원해야한다고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운동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시민의 신문>의 오늘의 발전과 지령 6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신문을 매주 어김없이 알찬 내용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시민의 신문>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표한다.